

HIV감염 아동에 성인용 약제 효험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가장 최근의 에이즈퇴치 의술에서 성인용으로 처방된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뉴질랜드통신(NZPA)이 보도했다.

오클랜드 스타십 어린이병원 감염 질환 전문의 레슬리 보스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로 불리는 이 의약품은 어린이 생명을 유지하는 긴요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는 다른 에이즈 치료약제와 대량 혼용할 경우 면역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 AFP=聯合)

2종 혼합약제 HIV치료 효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게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HIV) 치료약으로 알려진 2종의 약제를 복용시키다 중단했으나 HIV가 재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프랑스 의사들이 밝혔다.

프랑스 의사 7명은 영국 의학잡지 랜싯 최신호에서 "2명의 에이즈 환자를 1년 동안 혼합약물치료를 한 뒤 1년 동안 중단했지만 HIV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사용한 약물은 'ddI'로 알려진 '디다노신'과 '하이 드록시카바 마이드리'는 2개 종류였다.

의사들은 이번 연구 결과로 볼 때 HIV감염 초기에 이들 2개 약물을 혼합해 치료하면 HIV-1을 퇴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AFP=聯合)

FDA 에이즈 혼합약제 첫 승인

美식품의약국(FDA)은 기존의 에이즈 치료약 2개를 혼합 제조한 첫 약품인 글락소 웰컴사의 콤비비르를 승인했다.

가장 오래된 에이즈 치료약인 AZT와 3TC를 혼합한 콤비비르는 지금까지 정해진 시간대에 많게는 20개까지 복용해야만 하는 에이즈 감염환자들의 알약복용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 AP新華=聯合)

에이즈치료제 알려진것보다 실패율높아

획기적인 에이즈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프로테아제 억제제가 실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 투여한 결과 절반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에이즈 클리닉이 1백36명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최소 6개월 동안 투여했으나 53%의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행을 저지하는 효과를 보는데 실패했다고 연구진이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이번 연구 대상으로 참여한 환자들이 이전 치료 약물에 의한 반발 작용을 보이고 하루에 26알을 복용해야하는 까다로운 약 복용방법에 잘 적응하지 못해 실패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워싱턴 AFP=聯合)

美 에이즈 유전자요법 임상실험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14세의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유전자요

법이 미국에서 임상실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존 코넬 소아유전요법 프로그램실장인 도널드 콘 박사는 이 유전자요법은 HIV에 감염되는 세포는 1차적으로 골수속의 幹細胞기 때문에 골수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하여 골수세포로 하여금 HIV에 대해 저항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콘 박사는 이 기술은 환자의 골수로부터 간세포를 채취하여 여기에 HIV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주입한 다음 이를 다시 환자에게 이식, HIV에 저항력을 가진 세포를 만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세포의 유전조작을 통해 HIV의 증식을 막게 되면 에이즈의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콘 박사는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UPI=聯合)

HIV 죽이는 바이러스 최초로 개발

미국 예일대학 의과대학의 존 로스 박사와 독일연방동물바이러스질환연구소의 카를 툴라우스 콘체르만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미 HIV에 사로잡힌 세포만을 골라 죽이는 바이러스를 유전자조작을 통해 사상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러스를 죽이는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시험관 실험에서만 성공하고 임상실험은 물론 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것으로 에이즈 퇴치가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의학자들은 이 기발한 착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개개의 HIV는 GP-120이라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구형의 유전물질이다.

이 물질은 일부 혈액세포가 그 표면에 지니고 다니는 CD-4와 푸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두종류의 단백질에 대해 화학적으로 강력한 친화력을 갖는다. 결국 HIV는 그의 GP-120을 자석으로 이 혈액세포에 달라붙는 것이다. GP-120이 일단 CD-4와 푸신에 달라붙으면 HIV는 그 혈액세포의 문을 열어 자신의 유전정보를 세포안으로 쏟아붓는다. HIV의 이 유전정보는 다시 세포사체의 유전자들안으로 들어가 이 유전자들을 "HIV제조공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HIV에 감염된 세포는 GP-120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표면에 달고 다니게 되는 것이다.

보스 박사와 콘체르만 박사가 개발한 유전조작된 VSV와 광견병 바이러스는 표면에 있는 본래의 외피막을 없애고 그 자리에 CD-4와 푸신을 대신 들어앉힘으로써 HIV의 감염절차를 역전시킨 것이다. 즉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CD 4와 푸신은 HIV 세포의 표면에 있는 G-120에 끌려가 HIV세포속으로 돌진하게 되며 결국 몇시간후에 이 HIV세포는 죽어 증식을 멈추게 된다.

시험관실험에서 VSV는 3개월동안 HIV를 거의 체로상태까지 감소시켰다. 이는 다시 말해 VSV가 HIV를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HIV가 에이즈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있다. (보스던 AP=聯合)

HIV 공격 특수 T세포(백혈구)개발

면역체계의 일부인 T세포(白血球)를 유전조작해 투입하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를 죽일 수 있다는 연구결

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 대학, 쉐 지네시스 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 죽일 수 있도록 T세포를 유전조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파트너스 에이즈연구센터의 브루스 워커 원장은 이 유전조작된 T세포는 HIV에 감염된 세포가 HIV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기 전에 이들을 일찍 포착해냄으로써 HIV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워커 박사는 이 특수 T세포는 또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여러종류의 HIV변종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이 T세포가 HIV 변종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IV에 감염된 세포는 새로운 HIV를 만들어 내 이를 증식시키며 HIV는 스스로 갖가지 변종으로 변신을 계속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유전변이 T세포의 개발은 앞으로 에이즈치료에 있어 '새롭고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커 박사는 전망했다. (워싱턴 AFP. 共同=聯合)

전세계 AIDS환자 2천2백60만명

전세계적으로 96년 12월 현재 총 2천2백60만명이 에이즈와 에이즈유발 바이러스(HIV)에 감염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가운데 3백10만명은 96년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유엔 보고서가 밝혔다.

유엔 에이즈 방지 프로그램(UN

AIDS)은 제4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회의 폐막에 즈음해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이들 2천2백60만명 가운데 2천1백80만명이 성인이며 이중 1천2백60만명이 남성, 9백20만명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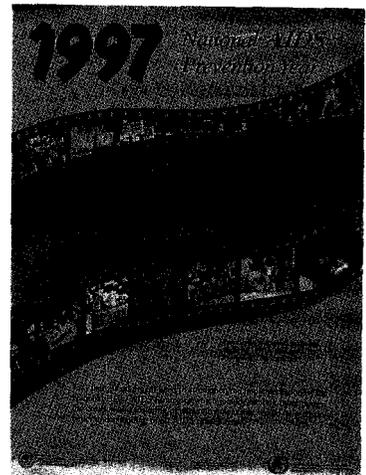
나머지 80만명은 어린이들이며, 이들중 40만명이 96년에 감염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닐라 新華=聯合)

마닐라서 공동퇴치방안 논의

에이즈 수출국으로 오명을 떨쳤던 태국이 이웃국가들에서 역수입되는 에이즈에 시달리는 등 아시아의 국경 없는 전염병이 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 대표단 3천여명은 지난 10월25일에서의 2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에이즈 회의에서 에이즈 퇴치를 위한 공동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세기 인류 최악의 전염병으로 떠오른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겪은 실패담과 성공담을 집중 토론했다. (방콕 dpa=聯合)



의사 50명 HIV 백신 생체실험 자원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국제에이즈치료의사협회(IAPAC) 소속 의사 50명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HIV)로 만든 실험용 백신을 자신들의 몸에 주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시카고 트리뷴紙가 9월 22일 보도했다.

고든 나리 IAPAC 사무총장(63)을 비롯, 시카고에서 활동중인 의사 3명 등 전세계 50명의 IAPAC 소속 의사들은 상업용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목숨을 담보로 살아있는 백신의 인간 생체 실험을 자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에이즈 백신 개발과 관련해 세계 의학계는 지금까지 죽은 HIV를 원숭이 등 동물들을 대상으로만 실험해왔으며 강도는 약할지라도 살아있는 HIV를 그것도 인체에 주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APAC는 우선 이같은 실험계획을 미국립보건연구소(NIH)에 알려야하기 때문에 실험 개시 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IAPAC는 11월 이 협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국제 HIV 에이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트리뷴紙는 말했다.

나리 사무총장은 "백신 개발의 개발을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수적 과학자들의 가정으로 그동안 정말 느리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세계 의학계는 강도가 약할지라도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 백신이 에이즈나 다른 문제를 유발할 것을 우려, 살아있는 바이러스와 관련한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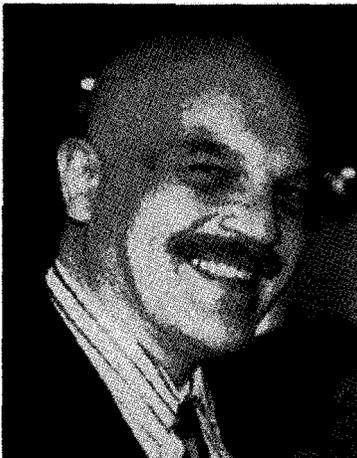
신에 초점을 두지 않아왔다.

나리 사무총장은 "나는...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1천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지도자이자 로스앤젤레스 소재 에이즈 보건재단 의학과장인 찰스파싱 박사는 IAPAC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실험의 허가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연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IAPAC는 연구를 미국내 한개 州에 한정시키거나 유럽에서 수행하는 경우 FDA 승인없이도 이같은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에이즈 환자는 미보고자를 포함, 약 7백 70만 명이며 감염자는 약 2천 8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카고 AFP·AP=聯合)



IAPAC 고든 나리 사무총장

瀛.英.佛 등 전세계 동참전화 쇄도

에이즈 백신을 오는 2000년 이전에 개발기 위해 에이즈바이러스(HIV)로

만든 백신을 자신들의 몸에 주입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시카고 소재 국제에이즈치료의사협회(IAPAC) 소속 의사들은 당국이 허가하지 않더라도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IAPAC는 전일 협회 소속 의사 50명이 에이즈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하버드 醫大 과학자가 개발한 백신 실험 대상으로 자원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태국 등 전세계로부터 동참하겠다는 전화, 팩스와 전자메일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자의 한 사람인 IAPAC의 조주니가 부회장은 IAPAC가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라도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백신이 HIV에서 4개의 유전 요인을 제거, 면역 반응을 약화시킨 것으로서 원숭이를 사람의 HIV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AFP=聯合)

"HIV 생체 실험은 시기상조"

시카고 소재 국제 에이즈 치료 의사협회(IAPAC) 소속 의사 50명이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HIV)로 만든 실험용 백신을 자신들의 몸에 주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기 상조라고 미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앤터니 포시 박사가 지적했다.

포시박사가 이의사들이 지난 주말 발표한대로 실험용 에이즈백신을 자신들의 몸에 주입한다면 이는 엄격한 검사를 회피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역등 다른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과 달리 HIV는 유전자 코드를 인간 세포에 주입, "그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 수"있으며 약화된 형태의 백신도 일단 주입되면 강화된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UPI=聯合)

에이즈 백신 접종은 "自殺행위"

독일의 로버트 코흐연구소소장인 라인하르트 쿠르트 박사는 미국의 시카고의사협회회원 50명이 에이즈 백신 접종을 자원한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증식능력을 저하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주입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말하고 원숭이에 대한 에이즈 백신 실험에서 백신의 효과가 어느정도 입증되기는 했지만 백신이 주입된 일부 원숭이들이 실험중에 실제로 에이즈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쿠르트 박사는 "스스로를 실험동물로 내던지는 것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어디서건 이러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이프치히 (독일) DPA新華=聯合)

韓人 1명 인체실험 동참

에이즈 바이러스(HIV)로 만든 백신을 직접 자신이 몸에 접종, 실험을 자원한 美 국제 에이즈 치료의사협회(IAPAC)소속 의사 50명 가운데 한국인 의사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10월 10일 확인됐다.

시카고에 소재한 IAPAC의 조 주니가 부회장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인 의사

한명이 에이즈 백신의 인체 실험에 참여를 선언한 의사 50명에 끼여 있다"고 밝혔다.

주니가 부회장은 또 "그(한국인 의사)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남자의 사"라고만 설명하고 "나이동 그의 신분관계는 현재로서는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일절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聯合)

에이즈 백신 인체실험 확대 촉구

국제 에이즈 전문가들은 10월29일 에이즈 바이러스(HIV) 백신 개발을 촉진시키기위해 인체 실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美국방부 산하 월터 리드 육군연구소(WRAIR)의 존 맥네일 박사는 이날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에이즈회의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체 실험을 해야 한다. 이것이 HIV 백신 개발을 진척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맥네일 박사와 다른 연구원들은 침팬지의 HIV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했으며 사람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드러난 HIV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HIV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백신회사의 도널드 프랜시스 연구원은 인체 실험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자들에 대한 상담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윤리적인 논의에 지나치게 휘말리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닐라 AFP=聯合)

에이즈백신 5년내에 개발될 전망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공동발견자인 프랑스 과학자 퀴크몽타니에는

에이즈백신이 앞으로 5년내에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학의 진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낙관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몇가지 약제를 혼합하는 복합치료법에 있어 빠른 진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에이즈 희생자의 절대다수가 개발도상국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적절한 치료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은 전세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DPA=聯合)

쑤검찰직원 교수등 6명 에이즈 생체실험에 자원

전직 검찰 직원과 대학교수 등 국내 氣(기)수련인 6명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생체실험에 자원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

주인공들은 서울지검 전 수사계장 李容高(이용설, 41)씨를 비롯, 李씨에게 기수련을 받고 있는 모대학 이모 교수와 모방송국 성우 등.

지난 3월 검찰을 떠나 모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李씨는 미국의 사들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 생체실험에 자원했다는 보도를 보고 지난 9월 23일 생체실험 지원서를 팩스를 통해 국제에이즈전문의를사협회(IAPAC)에 발송. 李씨는 "인류구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팩스를 보낸후 본인으로부터 기수련을 받고 있는 이교수 등 5명에게 권유하자 이들도 동참의사를 표하고 역시 팩스로 지원서를 보냈다"고 설명. (서울=聯合)

종교계 인사들이 어린이들 성폭행

호주에서 성직자 등 어린이에 대한 이상성욕자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경찰과 종교기관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졌다.

제임스 우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독립적 사법조사위원회는 1천3백쪽에 달하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 소兒性愛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성직자들과 교회, 학교, 가정, 기타 종교 유관단체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어린이들을 성폭행해 온 슬픈 역사"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시드니 AFP, AP=聯合)



제10회 세계 에이즈날 포스터

태매춘가에 외국어린이 유입

1만명 이상의 외국어린이들이 해마다 태국의 매춘가로 끌려오고 있다고 태국 어린이권리보호소의 산파싯 쿼프라판 소장이 밝혔다.

어린이 매춘과 포르노 및 밀거래와 투쟁하는 비정부기구인 역광 관계자들은 외국땅에서 어린이와 성적 접촉

을 한 혐의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처벌하도록 한 법안을 포함, 위협에 처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을 13개 정부에서 이미 통과시켰거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방콕=聯合)

20대 감염자, 10대 100명 감염시켜

미국 뉴욕주 사토카 카운티 보건관리들은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임을 잘 알고 있는 20세의 한 남성이 6개월간 수십명의 10대 소녀들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져 1백여명에게 직·간접으로 HIV를 감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로버트 버크 보건위원은 이 남성은 10대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나타나 소녀들을 유혹하고 섹스를 대가로 마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28명의 경우는 직접 성접촉을 통해, 53명은 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이 추가 확인한 11명의 HIV 양성 반응자외에도, 또다른 17명이 아직 검증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AP UPI=聯合)

中 홍콩에 에이즈교육 지원 요청

중국의 성교육 담당 관리들은 매춘부들의 증가에 따른 자국내 에이즈 확산을 우려, 안전한 성 지식 전파에 대한 홍콩 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보도했다.

홍콩에서 폐막된 사흘간의 성교육과 에이즈에 관한 전람회에는 북경에 본부를 둔 중국 성병·에이즈 방지협회 관리들이 참석, 효과적 캠페인 방

법을 배우는 한편 본토에서 자문활동을 벌일 성교육 전문가 채용에도 나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성병감염자 HIV 감염률 보통사람보다 10배 높아

성관계에 의해 옮겨지는 질병에 전염된 사람들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높다고 필리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말했다.

보고서는 "이들 질병에 걸리면 백혈구 수가 늘어나며 이들 질병과 싸우는 동안 HIV 감염도 증가하게 된다"며 이성과의 성관계가 분란한 사람들과 동성에 남성들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마닐라 dpa=聯合)

開途國 신생아 HIV 감염 증가

선진국에서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HIV)의 모자간 감염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신생아의 HIV 감염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영아사망률은 에이즈의 증가로 인해 2010년에는 지금보다 40~70%가 높아질 것이라고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에이즈 프로그램 책임자 헬렌게일이 전망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임신기간중 먹어야 하는 '076'등 미산 약품을 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FP=聯合)

美의학계 HIV감염 의무신고 촉구

미국의 권위있는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은 에이즈 환자의 조기치료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보건당국에 대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 의무 신고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건기관은 에이즈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감염위험을 경고해주고 조연과 치료를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 AP=聯合)

關途國 임부에게 에이즈新藥 실험

미국의 의학 연구기관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태국 등 7개 개발도상국들의 임신 여성 1만2천2백11명을 대상으로 비도덕적인 실험 실험을 실시해왔다고 권위있는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폭로했다.

이 전문지는 미국정부에서 예산을 대는 국립보건원(NIH)과 질병방지통제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년간 이들 임산부를 대상으로 HIV에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HIV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의약품보다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 개발 실험을 해왔다고 전했다 (보스턴 dpa, UPI=聯合)

위생업종사 성병환자 5만3천여명

음식점, 술집, 다방 등 위생업 분야 종사자 가운데 성병환자가 5만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위생 분야 종사자 2백88만3백85명에 대해 성병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85%인 5만3천4백명이 각종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업소 점객원(2만4백80명)과 특수업태부(사창가여종업원 : 1만2천1백62명)가 61.1%를 차지했다.

검진자중 성병감염자 비율은 특수업태부가 7.94%로 가장 높고 유흥업객원 3.045, 다방 종사자 2.61%, 증기당 1.77% 순이었다. (서울=聯合)

일본식 퇴폐영업 상륙저지 비상

속옷만입은 여성이 술자리 시중을 드는 란제리 파브와 패션헬스, 마사지클럽 등 퇴폐 풍속영업이 일본에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나체의 여성이 남성손님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션헬스와 마사지클럽 등 신종 풍속영업이 일본에서 곧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총리실 산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聯合)

20대 에이즈 보균자 감시망 피해 확보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보균자임을 알고도 현혈한 20대 에이즈 보균자가 거주지를 무단 이탈, 상경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의 에이즈 예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월 6일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의주로 서소문공원에서 노숙을 하려다 불심검문에서 붙잡힌 陳모씨(23. 전남 영광)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수배관서인 광주지검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陳씨는 지난 6월 상

경, 인력시장을 통해 서울 지역의 중국집 등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설거지 등 잡일을 해 주고 번 돈으로 어렵게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陳씨는 경찰에서 "10세때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걸리게 됐다"며 "작년 7월 전남 보건소로부터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陳씨는 또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안 뒤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하지는 않았다"며 "매월 받는 검사에 대한 고통이 큰 데다 먹고 살길이 막막해 서울로 왔을 뿐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잠적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聯合)

에이즈등 '감염혈액'관리 구멍

에이즈 감염우려가 있거나 매독·간염등에 걸린 사람이 일선 병원에서 현혈한 혈액의 90%가 폐기되지 않고 환자수혈에 사용되는 등 혈액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신(金洪信·민주당)의원은 10월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우리 팀의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일반병원의 혈액원에서 이뤄진 5만8천5백83건의 현혈 가운데 적십자사 현혈과정에서 이상혈액으로 판명된 사람의 혈액이 3백39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이즈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포착된 이상혈액 18건의 전부가 걸러지지 않고 사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聯合)